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갈라디아서 3 주차(갈 3:26~5:1)  
(2015년 1월 11일 - 2015년 1월 17일)  
(제 2권 3호)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2 권-3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 월 11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4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차별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주일]

###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3:26~29)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 원어해석하기

- (26절) 당신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Πάντες γὰρ υἱοὶ θεοῦ ἐστε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 (27절)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나 (ὅσοι γὰρ εἰς Χριστὸν ἐβαπτίσθητε,)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Χριστὸν ἐνεδύσασθε.)
- (28절)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οὐκ ἐνὶ Ἰουδαίῳ οὐδὲ Ἑλλην,)  
종도 자유인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οὐκ ἐνὶ δοῦλος οὐδὲ ἐλεύθερος,)  
남자도 여자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οὐκ ἐνὶ ἄρσεν καὶ θήλυ.)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πάντες γὰρ ὑμεῖς εἷς ἐστε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 (29절)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εἰ δὲ ὑμεῖς Χριστοῦ,)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ἄρα τοῦ Ἀβραάμ σπέρμα ἐστέ,)  
약속을 따른 후사입니다 (κατ' ἐπαγγελίαν κληρονόμοι.)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교차배열구조(Chiasmic Structure)로 쓰였습니다.

- A: 당신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들임 (26 절)
- B: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옷입었음 (27 절)
- C: 그 안에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이 없음 (28 절 상)
- B': 왜냐하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 (28 절 하)
- A':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아브라함의 씨이고 약속을 따른 후사임 (29 절)

26 절과 29 절(A-A')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26 절과 29 절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6 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믿음은 나의 이해나 우리의 세계관과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생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인간들은 자신의 소신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신이나 율법적 행위가 그것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때때로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27 절과 28 절 하반절을 읽어 보십시오. 27 절의 정확한 번역은 “그리스도 안으로 (into Christ)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옷입었습니다”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행한 일을 보거나 우리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의미이지요. 당신은 그리스도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 자신이 아닌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 당신을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그릇된 행위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간단하게 이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아래의 디도서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3:3-7).

디도서 3장 3절~7절 말씀을 당신의 언어로 간단하게 요약해보십시오.

28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자도,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분차별을 철폐하거나 남녀평등을 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 질서를 파괴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이다!” 두번째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신분이나 민족적 특권이나 성별을 가지고 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까?(당신의 고백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당신은 아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월요일]

###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4:1~7)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 원어해석하기

- (1절) 내가 말합니다 (Λέγω δέ,) 상속자가 어린아이로 있는 동안 내내 (ἐφ' ὅσον χρόνον ὁ κληρονόμος νήπιός ἐστιν,) 종과 차이가 없습니다 (οὐδὲν διαφέρει δούλου) 비록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κύριος πάντων ὢν,)
- (2절) 그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습니다 (ἀλλὰ ὑπὸ ἐπιτρόπους ἐστὶν καὶ οἰκονόμους) 아버지의 정하신 시간까지 (ἄχρι τῆς προθεσμίας τοῦ πατρός.)
- (3절) 이와같이 우리도 (οὕτως καὶ ἡμεῖς,)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ὅτε ἦμεν νήπιοι,) 이 세상의 기본원리 아래 있었습니까 (ὑπὸ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 ἡμεθα) 종이 되어서 (δεδουλωμένοι.)
- (4절) 그러나 때가 온전히 차매 (ὅτε δὲ ἦλθεν τὸ πλήρωμα τοῦ χρόνου,)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ἐξαπέστειλεν ὁ θεὸς τὸν υἱὸν αὐτοῦ,) 한 여자로부터 나게 하심으로 (γενόμενον ἐκ γυναικός,)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γενόμενον ὑπὸ νόμον,)
- (5절) 그 결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속량되었습니다 (ἵνα τοὺς ὑπὸ νόμον ἐξαγοράσῃ,) 그 결과 우리가 양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ἵνα τὴν υἰοθεσίαν ἀπολάβωμεν.)
- (6절) 당신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Ὅτι δὲ ἐστε υἱοί,)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ἐξαπέστειλεν ὁ θεὸς τὸ πνεῦμα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εἰς τὰς καρδίας ἡμῶν) 부르짖기를: '아바 아버지' (κραῖζον· αββα ὁ πατήρ.)
- (7절)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ὥστε οὐκέτι εἶ δούλος ἀλλὰ υἱός,) 그리고 만약 아들이라면(εἰ δὲ υἱός,) 또한 하나님을 통한 상속자입니다 (καὶ κληρονόμος διὰ θεοῦ.)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상태에 있다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지금의 자유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기서 “어린 아이로 있는 동안”은 어느 기간을 의미합니까?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후반절 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가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후견인과 청지기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정하신 기간 동안”이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를 의미합니까?

3절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본원리 (the basic principle of the world) 아래서 그것의 종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본원리는 2절에서는 후견인과 청지기로, 5절에서는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자신이 뺏속까지 죄인임을 깨닫고 죄문제로 힘들어 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과정이 생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절과 5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백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시킨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 어린양이 죽음으로써 속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종살이가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본 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



##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반드시 그것에 종노릇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해방의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를 입증하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한 사람들, 율법에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 세상 도덕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찾아 오십니다. 자신이 죄로 인한 절박한 상황을 경험하여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5절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 두 가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는 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먼저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어 신분을 획득한 것입니까?(만약 우리가 믿어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획득했다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선택권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됩니다.)

7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쟁기를 박고 있습니다. 더이상 우리의 신분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누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적어 보시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십시오.

이 논쟁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느냐 아니냐? 라는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믿음과 율법의 상호 관계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후에는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종노릇 하지 말라 [화요일]

###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4:8-11)

8.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10.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 원어해석하기

- (8절) 사실 그러나 그 때에는 (Αλλά τότε μὲν)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οὐκ εἰδότες θεὸν)  
당신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였습니다  
(ἐδουλεύσατε τοῖς φύσει μὴ οὖσιν θεοῖς·)
- (9절) 그러나 지금은(νῦν δὲ)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γνόντες θεόν·)  
더더욱 하나님에 의해 당신들이 인지되었기 때문에 (μᾶλλον δὲ γνωσθέντες ὑπὸ θεοῦ·)  
당신들이 어떻게 무력하고 쓸모없는 [세상의] 기본원리로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πῶς ἐπιστρέφετε πάλιν ἐπὶ τὰ ἀσθενῆ καὶ πτωχὰ στοιχεῖα)  
그것[기본원리]은 [여러분을] 다시 종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οἷς πάλιν ἄνωθεν δουλεύειν θέλετε·)
- (10절) 당신들은 [지금] 달과 날과 절기와 연도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ἡμέρας παρατηρεῖσθε καὶ μῆνας καὶ καιροὺς καὶ ἐνιαυτούς·)
- (11절) 지금 나는 당신들을 향한 나의 노력이 전혀 헛된 것이 될까 두렵습니다.  
(φοβοῦμαι ὑμᾶς μή πως εἰκῆ κεκοπίακα εἰς ὑμᾶς·)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경고의 말을 던집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라는 점을 설명하여 왔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오늘 날로 말하면 각종 종교적인 것들에 종노릇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한 규칙들, 이 세상이 원하는 도덕적 원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우위에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지고 힘들어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

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율법적인 짐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지긋지긋한 율법의 굴레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8절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간단하게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출애굽기 32 장 참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한 것이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당신의 마음 속에 그려진, 그래서 당신이 믿고 섬기는 그 존재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9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두가지 이유 때문에 무력하고 쓸모없는 세상의 기본원리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찾아서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당신들이 인지되었기 때문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적어 보십시오.

##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여기서 세상의 기본 원리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도덕이나 관습들이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그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기본 원리를 “무력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력하고 쓸모없는’이라는 수식어는 아주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본원리가 왜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일까요?

세상의 기본 원리는 우리들을 종삼으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을 삼는다는 것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관한 핵심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의 행위가 낳은 결과물에서나? 우리가 율법에 종노릇한다는 말의 뜻은 나의 삶을 아직도 율법이라는 거울로 판단하고 갈고 닦으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에게는 율법적인 요소들이 없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율법적인 요소들을 적어 보시고 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10 절과 11 절을 읽으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당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키려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관습이나 전통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왜 그토록 고수하려 하십니까?(관습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무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수요일]

###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4:12~15)

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14.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 원어해석하기

- (12절) 나와 같이 되십시오 (Γίνεσθε ὡς ἐγώ,)  
내가 당신들 처럼 되었기 때문에 (ὅτι καὶ γὰρ ὡς ὑμεῖς,)  
형제들이여 당신들에게 간청합니다 (ἀδελφοί, δέομαι ὑμῶν.)  
당신들이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οὐδὲν με ἠδικήσατε.)
- (13절) 그러나 당신들은 처음에 육신의 무력함 때문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οἴδατε δὲ ὅτι δι' ἀσθένειαν τῆς σαρκὸς εὐηγγελισάμην ὑμῖν τὸ πρότερον.)
- (14절) 그리고 내 육체에 시험할 만한 것을 당신들은 업신여기지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까 (καὶ τὸν πειρασμὸν ὑμῶν ἐν τῇ σαρκί μου οὐκ ἐξουθενήσατε οὐδὲ ἐξεπτύσατε.)  
당신들은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받아 주었습니다 (ἀλλὰ ὡς ἄγγελον θεοῦ ἐδέξασθέ με, ὡς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 (15절) 당신들의 축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ποῦ οὖν ὁ μακαρισμὸς ὑμῶν;)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다음 사실을] 증거합니다 (μαρτυρῶ γὰρ ὑμῖν ὅτι)  
만약 가능하였다면 (εἰ δυνατόν)  
당신들은 [당시에] 당신들의 눈을 빼내어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ὑμῶν ἐξορύξαντες ἐδώκατέ μοι.)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말씀은 4 장 12 절부터 20 절까지의 논증 중 첫부분입니다. (20 절까지의 내용이 길어 두 번에 나누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갈 4:12~20)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간의 특별한 관계를 부각함으로써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신들은 나와 같이 되십시오!(Γίνεσθε ὡς ἐγώ,)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주제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 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도덕적인 삶, 율법적인 삶을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닮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자신의 무엇을 닮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를 하고 가르칠 때에도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요, 랍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후손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닮으라고 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적어 보시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태여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갈라디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바울 사도가 육신적으로 매력적이거나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신의 무력함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무력함에는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심한 폼박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 서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육체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육신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기에 육신적으로 무력한 처지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14 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 자신의 육체 또는 신변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남들이 업신여길만한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업신여길 만한 문제가 있고 그것이 바울 스스로 느끼기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



##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14 절 후반절을 읽으십시오.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 주었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충분히 바울을 배척할 만한 조건이 있음에도 사도 바울을 반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최초로 복음을 전할 당시를 상기기키고 있을까요?

15 절 상반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신들의 축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수사적 질문을 통해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당시에 바울과의 친밀했던 관계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도 바울 또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당신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갔다면 당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당신이 은혜의 복음을 들은 후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당신에게 율법으로 되돌아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신은 지금 구원받은 당시의 그 첫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습니까?

15 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신들은 [복음을 전할 당시에] 당신들의 눈을 빼내어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보고 사도바울이 당시 안질(눈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그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너무 기쁜 나머지 갈라디아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도 기꺼이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에게 복음 전함을 받을 당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목요일]

###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4:16~20)

16.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17.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18.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 원어해석하기

- (16절)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진리를 말하였기 때문에 당신들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ὥστε ἐχθρὸς ὑμῶν γέγονα ἀληθεύων ὑμῖν;)
- (17절) 그들은 당신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ζηλοῦσιν ὑμᾶς οὐ καλῶς,)  
당신들을 분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ἀλλὰ ἐκκλεῖσαι ὑμᾶς θέλουσιν,)  
당신들이 그들에 대해 열심을 내도록 말입니다.(ἵνα αὐτοὺς ζηλοῦτε·)
- (18절) 선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대면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습니다  
(καλὸν δὲ ζηλοῦσθαι ἐν καλῷ πάντοτε καὶ μὴ μόνον ἐν τῷ παρεῖναι με πρὸς ὑμᾶς.)
- (19절) 나의 자녀들이여 (τέκνα μου,)  
당신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당신들을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οὗς πάλιν ὠδίνω μέχρις οὗ μορφωθῆ Ἰησοῦς ἐν ὑμῖν·)
- (20절) 내가 지금 당신들과 함께 하고자 하고 나의 목소리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ἤθελον δὲ παρεῖναι πρὸς ὑμᾶς ἄρτι καὶ ἀλλάξαι τὴν φωνήν μου,)  
왜냐하면 당신들 의해 혼란스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ὅτι ἀποροῦμαι ἐν ὑμῖ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자신의 어조를 바꿉니다. 매우 강한 어조의 질문으로 자신의 편지를 어어 갑니다. 그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멀어져 그릇된 길을 걷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들에게 진리를 말하였기 때문에 당신들의 원수가 되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 둘 사이가 상당히 멀어져 원수처럼 되어 있다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과 그들의 관계가 원수처럼 된 이유는 진리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도 바울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멀어진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그가 갈라디아 교회와 영원한 이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친밀했던 관계를 회복하고자 던진 질문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과 그들이 과거와 같은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내려 놓고 갈라디아 인들에 맞추어야 할까요?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시 그들이 받은 최초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믿고 그것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7 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명명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었고 믿었고 지금 따르고 있는 그것을 철석같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진리를 벗어나 엉뚱한 것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우선입니까?

##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18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열심’(zeal)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17절에서 두 번이나 사용하였던 단어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해내는 동력이지요. 하지만 그 의도가 잘못되면 결과는 열심을 내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 안에서 열심을 내느냐? 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언제든지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선(善)’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9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신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당신들을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해산의 수고에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은 “해산의 수고”라는 표현을 읽으면서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처음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다시’라는 말을 넣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첫번째 복음을 전할 때 이미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복음 전도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해준 분은 해산의 수고를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0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목소리를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목소리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위에 있는 예루살렘 [금요일]

###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4:21~26)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 기록된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23.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 원어해석하기

- (21절) 나에게 말하십시오 (Λέγετέ μοι,)  
율법아래에 존재하고자 하는 분들이여 (οἱ ὑπὸ νόμον θέλοντες εἶναι,)  
율법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τὸν νόμον οὐκ ἀκούετε;)
- (22절)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γέγραπται γὰρ ὅτι)  
아브라함은 아들 둘을 가졌습니다 (Ἀβραὰμ δύο υἱοὺς ἔσχεν,)  
한 명은 여종으로부터 나왔고 또 한 명은 ‘자유’로부터 나왔습니다  
(ἓνα ἐκ τῆς παιδίσκης καὶ ἓνα ἐκ τῆς ἐλευθέρας.)
- (23절) 그러나 여종으로부터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ἀλλ’ ὁ μὲν ἐκ τῆς παιδίσκης κατὰ σάρκα γεγέννηται,)  
‘자유’로부터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났습니다 (ὁ δὲ ἐκ τῆς ἐλευθέρας δι’ ἐπαγγελίας.)
- (24절) 이것은 풍자적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것입니다 (ἄτινά ἐστιν ἀλληγορούμενα·)  
왜냐하면 그것들은 두 언약입니다 (αὗται γὰρ εἰσιν δύο διαθήκαι,)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습니다 (μία μὲν ἀπὸ ὄρους Σινᾶ εἰς δουλείαν γεννῶσα,)  
그것은 [곧] 하갈입니다 (ἥτις ἐστὶν Ἁγάρ.)
- (25절) 그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τὸ δὲ Ἁγάρ Σινᾶ ὄρος ἐστὶν ἐν τῇ Ἀραβίᾳ·)  
지금 예루살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συστοιχεῖ δὲ τῇ νῦν Ἱερουσαλήμ,)  
그녀가 그녀의 자식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δουλεῖ γὰρ μετὰ τῶν τέκνων αὐτῆς.)
- (26절) 그러나 ‘자유’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ἡ δὲ ἄνω Ἱερουσαλήμ ἐλευθέρα ἐστίν,)  
그것은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ἥτις ἐστὶν μήτηρ ἡμῶ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장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율법과 자유에 관한 역사적 신학적 논증을 합니다. 이 논증의 목적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자유와의 관계를 풍유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증은 5장 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자유’입니다.

21 절을 읽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이 명령형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대답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율법아래 존재하고자 하는 분들이여 율법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율법 아래 존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당신은 지금 율법아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자유를 해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22 절과 23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로 부터 이야기를 풀어 갑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이브라함은 여종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과 본처 사라로부터 낳은 이삭,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물론 이 후에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체 이야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창 25:14 참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한명은 “여종”으로부터 나왔고 한명은 “자유”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면서 ‘종’과 ‘자유’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아들을 대조하면서 ‘종’과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 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종’=‘육신’, ‘자유’=‘약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논증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율법을 상징하고 약속은 은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더 선하고 멋있는 삶을 사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이라는 말은 방탕하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도 세상에서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절제된 삶이 구원을 위한 것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24 절과 25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풍자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 장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의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율법이 주는 위압감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갈=시내산=현 예루살렘이라는 등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종으로 만드는 율법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취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적어 보십시오.

26 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유’=‘위에 있는 예루살렘’=‘우리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등식으로 율법에 대응되는 다른 한 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라라는 실제 인물보다는 ‘자유’라는 추상 명사를 사용한 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실제 인물인 ‘사라’ 대신에 ‘자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약속과 자유의 자녀 [토요일]

###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4:27~5:1)

27. 기록된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 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 5: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 원어해석하기

- (27절)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γέγραπται γάρ·)  
즐거워질찌니라 (εὐφράνθητι.)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여 (στεῖρα ἢ οὐ τίκτουσα.)  
분출하라 외치라 (ῥῆξον καὶ βόησον.)  
해산의 고통이 없었던 자들이여 (ἢ οὐκ ὠδίνουσα·)  
잉태치 못한 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ολλὰ τὰ τέκνα τῆς ἐρήμου μᾶλλον ἢ τῆς ἐχούσης τὸν ἄνδρα.)
- (28절) 그러나 당신들은, 형제들이여, 이삭을 따른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ὁμεις δέ, ἀδελφοί, κατὰ Ἰσαὰκ ἐπαγγελίας τέκνα ἐστέ.)
- (29절) 그러나 그 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하였습니다  
(ἀλλ' ὥσπερ τότε ὁ κατὰ σάρκα γεννηθεὶς ἐδίωκεν τὸν κατὰ πνεῦμα.)  
그러므로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οὕτως καὶ νῦν.
-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ἀλλὰ τί λέγει ἡ γραφή·)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ἐκβαλε τὴν παιδίσκην καὶ τὸν υἱὸν αὐτῆς·)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οὐ γὰρ μὴ κληρονομήσει ὁ υἱὸς τῆς παιδίσκης μετὰ τοῦ υἱοῦ τῆς ἐλευθέρας·)
- (31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의 자녀입니다  
(διό, ἀδελφοί, οὐκ ἐσμὲν παιδίσκης τέκνα ἀλλὰ τῆς ἐλευθέρας.)
- (5:1)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Τῆ ἐλευθερία ἡμᾶς Χριστὸς ἠλευθέρωσεν·)  
그러므로 굳게 서십시오 (στήκετε οὖν)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짊어지지 마십시오 (καὶ μὴ πάλιν ζυγῶ δουλείας ἐνέχεσθε.)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이제 종과 자유, 율법과 믿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율법 아래서 종 노릇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가 갈라디아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한 율법의 굴레, 종의 굴레를 끊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를 한 후 그들에게로 온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인 그들을 율법으로 사로잡아 율법 아래로 끌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주면서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며 논증을 계속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속담인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임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드는 자’라고 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조: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 11:30))

사라는 처음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불임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인간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28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따른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은 당신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당신은 약속의 자녀답게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과 30절을 읽으십시오. 이 내용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창세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

##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서 사라는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이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과 아들이 약속의 자녀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믿음의 아들들인 우리들도 늘 율법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의존한 신앙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정말 율법을 온전히 벗어났습니까? 혹시 그것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31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있습니까? 당신이 그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간증해보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율법 아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바울의 권면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더 중시한 적은 없습니까?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